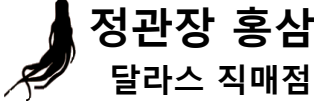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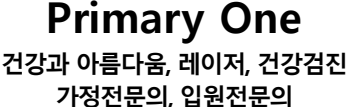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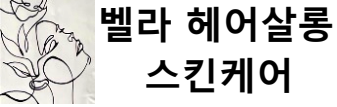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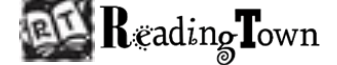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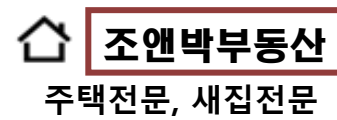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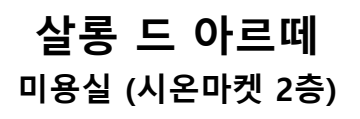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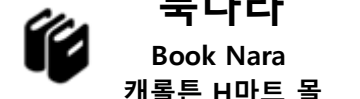


본당 모임 및 교육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레지오 마리아 주회	본당 제단체 모임	구역 연락처(12구역)
사목회의 (마지막, 일)3시 미사후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구역장회의 (첫째 토) 3:00 PM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학부모회 (셋째 일) 1:00 PM 대건회,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하상회,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이나시오회,5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사도회,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토마스회,30대 (셋째 토) 4 PM	순교자들의모후 (화) 4:15 PM 사랑의 샘 (화) 6:00 PM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평화의 모후 (토) 3:30 PM 자비의 모후 (토) 3:00 PM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울트레아 (둘째 일) 꾸리아 (셋째 일)1:00 PM 썰기도 (2,3주일)10시미사후 청년회 (토) 6:00 PM 교사회 (일) 9:15 AM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연령회 (둘째 목) 미사후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00 PM 이나시오CLC (월,수,목) 8:00 PM 재속복자회 (셋째 일) 4:00 PM 성찬봉사회 (첫째 금) 8PM,Zoom	총구역장 214-597-5553 알렌,맥키니 469-370-0422 캐롤튼 214-344-9129 코펠 817-946-9168 N. 코펠 949-616-5893 던컨빌 469-328-3831 얼빙 817-919-3050 E. 프리스코 469-922-4339 W.프리스코 678-687-8273 E. 플레노 214-205-3220 W. 플레노 818-590-3442 리차드슨 770-807-4984 밸리랜치 214-470-8747

교우 업체 소개

 캐롤튼 (214) 483-3838 24hr (469) 774-9669	 Tel (214) 461-0425 1111 Kinwest Pkwy #150 Irving, TX 75063 김하운 소피아 DDS	 건강과 아름다움, 레이저, 건강검진 가정전문의, 입원전문의 BO Na Lee, MD (214) 656-5388 (문자 가능함) 6957 W Plano Pkwy #2300, Plano	 헤어 (수지원장) 972.800.1063 스킨 (아그네스) 510.449.6933 첫 방문 남자 헤어컷 \$15 11434 Emerald St. #107 Dallas
 안나 케어/은혜복지센터 972-506-0177, 토(Sat 운영) (노인복지 전문기관, 자원봉사가능) KAS/비영리 한인가족지원센터 www.annacaretx.com	 뉴욕본사의 40년 교육 노하우 학생수준별 Reading & Writing 프로그램 리딩타운 프리스코점 945.276.0392 www.readingtowntown.com 8018 Preston Rd. Ste 505, Frisco	 사업체/주택/상가리스 남현주 마리아 (972) 357-5535 Realtor.marynam@gmail.com	 *전기의 모든 것* 한정관 요셉 Tel 972-955-6156
 "K-12, SAT/ACT, AP, Essay" Flower Mound Center 이수미 한나 469-231-2002	 이상학 스테파노 (972) 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	 Kate Kim김정인 카타리나 새차는 BMW 중고차는 Any Brand Mobile (480) 465-3853 bmwofdallas.com	 주택전문, 새집전문 박성아 소화데레사 (214) 770-6496 Realtorjoanne73@gmail.com
 972-704-5639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	 Tel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	 미술 영어 수학 테스트 준비 스템 Carrollton Campus 972-245-7914	 2 to 5 Years Old 임은희 요안나 상담: (682) 417-4455 유치원: 월~금, 생일파티: 토/일
 캐롤튼 H마트 물 7 days open (972) 245-2665 *이전 장소* "동천홍과 맛객 사이 북도 끝"	 Business Auto Home Medicare (972) 243-3598 11498 Luna Road Ste 101 Dallas, TX 75234	 Tel 972-693-6247 코마트 옆 일요일은 예약만 받습니다.	 설치 및 수리 (주택 / 상업용) 214-796-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PARISH



2026년 8월 2일

연중 제 18주일

제 260030호

오늘의 전례

[제1 독서] 이사야 55,1-3

[화답송] 시편 시편 145(144),8-9.15-16.17-18(© 16 참조)

-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 2 독서] 로마서 8,35.37-39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3,44-52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
	32	512	172, 180	31

미사시간안내	주일	토요일	5:00 PM
		일요일	10:00 AM 12:00 PM (영어) 3:00 PM
	평일	화, 목	7:30 PM
		수, 금	10:00 AM

성사안내	고해성사	미사 30분전 - 5분전
	유아세례	2,5,8,11월 첫째 토요일
	혼인성사	사무실에 6개월 전 신청
	성시간	첫째 목요일 미사 후

성당정보	
주임신부	조재형 가브리엘
부주임신부	윤충훈 세례자요한
수녀	장명화 수산나 김민혜 연희마리아
사무실	972-620-9150
종신부제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사목회장	서윤교 요셉
팩스	972-484-4628
주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사무실 업무시간	일	9:00 AM - 5:30 PM
	월	휴무
	화·목	12:30 PM - 8:30 PM
	수·금	9:30 AM - 6:00 PM
	토	10:00 AM - 6:30 PM

교육정보	
예비자교리	일 11:00 AM-12:15 PM
성경공부반	수 7:00 PM (남성반) 이 요한 부제
성경공부반	수 11:00 AM 장 수산나 수녀
성경공부반	수 11:00 AM 박 비비안나
성경100주간	금 8:00 PM, Zoom
거룩한 독서	화 10:00 AM, Zoom
거룩한 독서	수 8:00 PM, Zoom
주일학교 Youth	일 10:00 AM - 11:15 AM
한국학교	토 9:30 AM - 12:30 PM



연중 제18주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대교구 사제 모임이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었습니다. 보고타 선교센터에서 사목하는 신부님이 지난 3년 동안의 사목 현황을 보고 하였습니다. 주일 미사 참례 인원이 평균 4명에서 7명으로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세례도 3년 동안 5명이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큰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는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미사를 봉헌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타 선교센터는 주일 미사만 봉헌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본당의 미사를 도와주고, 남미에서 사목하는 선교 사제들의 쉼터가 되고,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열린 집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 대교구의 ‘한마음 한 몸 운동 본부’와 연계해서 남미의 어려운 교구를 돕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30,000불씩, 벌써 6번이나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교님께서는 사목 현황 보고를 들으신 후에 앞으로도 선교센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센터는 남미의 어려운 교구를 돕는 거점이 될 수 있고, 선교 사제들의 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처럼 작아 보였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적성 본당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본당 신자 중에서 화재로 집이 전소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본당의 공소회장도 했었고, 가족 모두가 성당의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했었습니다. 마침, 성당에 비어 있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본당 교우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까지 그 가족이 성당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게 청하였습니다. 저는 신자들의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4개월 동안 본당의 빈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성당 숙소에 머무는 동안 관리인처럼 성당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나중에 집을 새로 지어 입주한 후에는 감사헌금도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히 숙소를 빌려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친 이웃에게 공동체가 마음을 열어 준 일이었습니다. 성당의 빈방 하나가 한 가정에는 위로가 되었고, 공동체에는 복음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저희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오천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많이 가진 뒤에 나누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먼저 내어놓기를 바라셨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 시작은 제자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작은 나눔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보십니다. 작은 시간, 작은 정성, 작은 친절, 작은 기도, 작은 봉헌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그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총이 됩니다.

보고타 선교센터의 작은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성당의 빈 숙소를 내어준 적성 본당의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숫자와 큰 능력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믿음, 작은 나눔, 작은 사랑을 통해서도 하느님 나라를 보여 주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표징과 가르침이 마치 가상 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현실의 세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 병자가 일어나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중풍 병자가 치유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징과 가르침은 지금 이곳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상현실도 아니고, 증강현실도 아니며, 혼합현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느님 나라는 현실이 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하느님 나라는 현실이 됩니다. 작은 것을 기꺼이 나눌 때, 하느님 나라는 현실이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때, 하느님 나라는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느님 나라를 보여 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바

오로 사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고난, 감옥과 매질, 배고픔과 위험 속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를 현실로 체험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적의 동반자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모두 바꾸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나눔, 작은 친절, 작은 용서, 작은 봉헌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보고타 선교센터의 작은 공동체처럼, 적성 본당 교우들의 따뜻한 배려처럼, 오늘 복음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축복하시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어놓고, 이웃과 나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치유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경순(요안나), 기길자(투치아), 김선미(소피아), 김성희(글로리아), 김연우 제이든(요셉), 김외분(프란체스카), 김지연, 마하레(스텔라), 서지연(로사), 손현식(미카엘), 손현윤(가브리엘), 안길승(가브리엘), 양영도(이나시오), 엄찬길(찰스), 오안선(릿타), 윤지희(미카엘라), 이복순(카타리나), 이에린(세실리아), 이영준(라파엘), 임원옥(크리스티나), 전용환(요한), 정상욱(젬마), 정성문(요한), 차형례(데레사), 하정희(올리아), 한재민(야고보), 허순희(젬마)

공 지 사 항

2026년 사목 목표

1.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지난 50년의 감사와 기쁨을 새깁니다.
2. 성령의 친교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3.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 친교실 확장과 사제관 신축을 준비합니다.
4.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영성·문화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5. 감사·친교·나눔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합니다.

- 성시간 안내
일시 : 8/6 (목)
7 pm 묵주기도 (주관 : 성소 후원회)
7:30 pm 미사, 8 pm 성시간
- 윤충훈 세례자요한 신부님 휴가 : 8/4 - 8/14
- 중남부 남성 제18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는 은총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를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너 어디 있느냐?” (창세 3,9)
일시 : 9/3 (목) ~ 9/6 (일)
지도사제 :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
대상 : 견진성사 받으신 남성
신청비 : \$ 390
신청 마감 : 8/15 (토) 까지 성당 사무실
문의 : 달라스 올트레아 간사
박성아 소화데레사 214-770-6496
- 2026-27학년 주일학교 등록
주일학교 개학 : 9/13 (일) 10시
(2026 가을학기 - 2027 봄학기)
등록기간 : 7/12(일) - 8/30(일)

대상 : 만 5세 - 12학년 (9/1 기준)
등록금(1년) : 1자녀(\$120),
2자녀(\$220), 3자녀(\$300)
문의 : sundayschoolsak@gmail.com
주일학교장 이숙 글라라
469-831-9371
부분과장 송지은 안젤라
214-664-0158



- 2026-27년 벤자민반 (3 - 4세)
개학 : 9/13 (일) 10시
등록기간 : 7/19 (일) - 8/30 (일)
대상 : 만 3 - 4세 (9/1 기준)
등록금(1년) : \$100
문의 : 송주원 바오로 518-227-8332
- 2026 유스 그룹, 견진반 락인
일시 : 8/14 (금) 7pm - 8/15 (토) 7am
장소 : 성당 친교실
참가 대상 : 7학년 - 12학년
참가비 : \$10 (Cash or Venmo)
준비물 : 침낭, 세면도구
등록 기간 : 8/12 (수) 까지
문의 : 장시준 다니엘
sakdallasyouthgroup@gmail.com



- 청소년 복사단 모집
대상 : 3학년 - 6학년
신청 방법 : 사무실 신청서 작성
신청 마감 : 8/2 (일)
문의(문자) : 이상학 스테파노 501-366-3464
박경호 바오로 615-587-5008
- 2026-2027 예비신자 교리 모집
시작일 : 9/13 (일), 10시 미사 후
장소 : 교리실 C117
신청 : 8/30 (일) 까지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문의 : 임진명 요셉
joseph.lim@dallaskoreancatholic.org

- 2026 안전교육 안내
대상 : 성당 봉사자 (연 1회 재교육 필수)
일시 : 1차 8/9 (일) 11:30am - 1pm
2차 8/16 (일) 1pm - 2:30pm
방법 : 1, 2차 중 한 번 참석,
신규와 재교육 대상자 함께 진행
온라인교육 가능
www.virtusonline.org/virtus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조
문의 : 김안나 469-237-7930
akim112@gmail.com



- 도서실 봉사자 모집
도서실 정리 및 대여시스템 정비를 위해,
도와주실 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도서정리,
라벨붙이기, 도서 스캔(프로그램 입력) 등
(7월말 ~ 8월사이, 10명)
봉사자신청 : 972-743-2292
- 청년 영어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독서) 안내
첫 모임 : 8/9 (일) 1pm
대상 : 18세 이상 청년
일시 :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1-2pm
장소 : 유스그룹 방 C109
문의 : 장시준 다니엘 817-891-9382

- 2027년도 달력 광고 모집
광고비 : 1년 \$350 선불
신청 : 사무실 (선착순 마감)

- 여름철 복장 안내
성당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름철에도 미사 참례 시 지나치게 짧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민소매, 슬리퍼, 짧은 반바지)은 피하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30 까지 묵주기도 집계	102,065단
점심 봉사	얼빙

건축헌금		교무금					
Wonhee Benedict (50)		백장미, 유안나, 이순만, 정용웅, 전광수, 임종후, 이재훈, 주시일(6), 윤영주, 문영국, 차효정, 선봉성, 조준, 임태성, 손명애, 백수인, 황병근, 조성호, 조영아, 김미애, 박정심, 한정관, 김철, 김부천, 김중천, 한영섭, 문혜숙, Paul K Cho, Susan Partlow, Peter C Park, Pok Sun Frzier , Sung H Hong					
50주년 헌금 박마르타(500)							
건축 계정	\$118,836.83	건축	\$80.00	교무금	\$4,720.00	주일 헌금	\$5,314.00
일반 계정	\$302,984.00			베네수엘라 모금	\$602.00	주일 총액	\$10,686.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40 명	수 41 명	목 39 명	금 30 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89 명	10시 443 명	12시 180 명	3시 42 명		주일 합계	754 명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